키움증권

2025. 7. 15

KIWOOM ESG Week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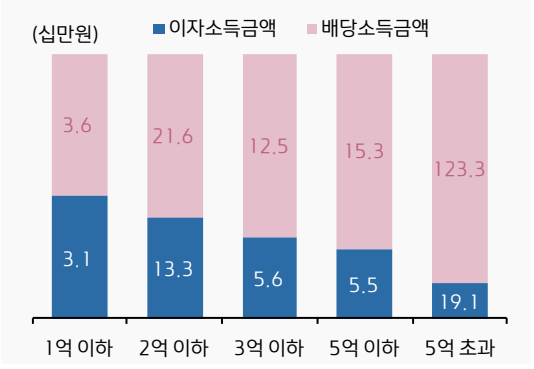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시황•ESG 이성훈
shl076@kiwoom.com

☑ Weekly Issue

새정부 첫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우선적으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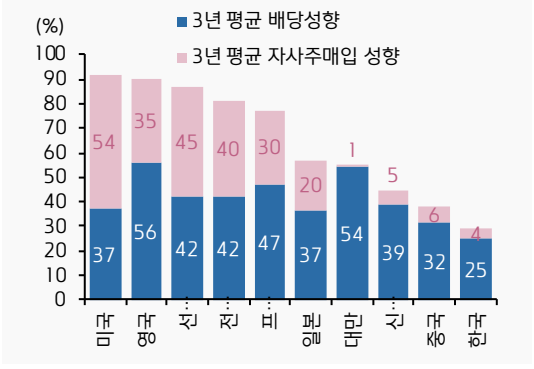
- ✓ 13 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7 월 말 새정부 첫 세법 개정안 발표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최우선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 역대 세법개정안마다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가 후순위로 밀리고 배당소득 세제 완화를 최우선으로 검토함으로써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 주된 취지.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 만원까지 금융소득에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2,000 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개정 방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세율 27.5%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최고세율(49.5%)과 비교하여 최대 22%p 세율이 완화되는 효과.
- ✓ 한국의 배당성향(3 년 평균 배당성향 25%)이 낮은 이유는 주식 자본이득세율과 배당소득세율 간 큰 격차가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소득구간별 배당 소득 비중을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배당 소득 비중이 높다는 점이 확인 가능. 즉, 배당소득은 누진세율로 종합과세(최고세율 49.5%)되는 반면, 자본이득은 최고 30%의 세율로 분류과세하기 때문에 배당정책 의사결정자인 대주주 입장에서 배당 확대보다는 사내 유보를 선호하게 되는 유인이 컸음. 금번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실제로 추진될 경우 대주주의 배당 확대 유인이 제고됨에 따라 향후 배당 확대가 기대되는 배당주에 대한 주가 프리미엄은 더욱 부여될 것으로 전망.

금융소득 구간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교



자료: 국세통계포털,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국가별 3 년 평균 주주환원율 비교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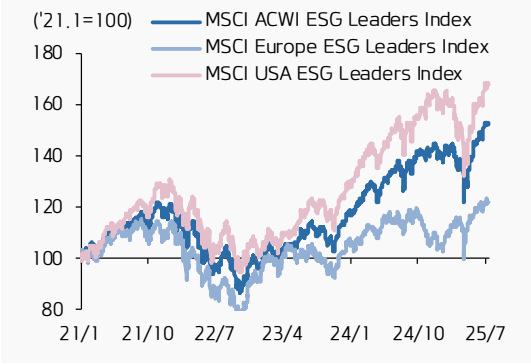
- 당사는 7 월 14 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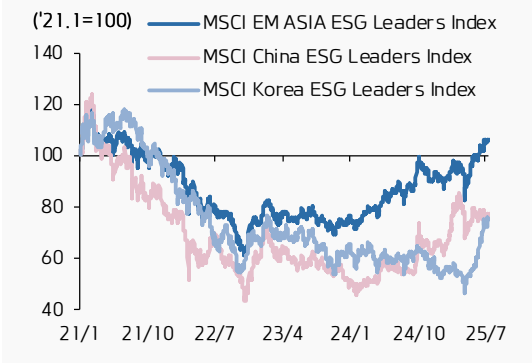
ESG 주요 차트

선진국 MSCI ESG Leaders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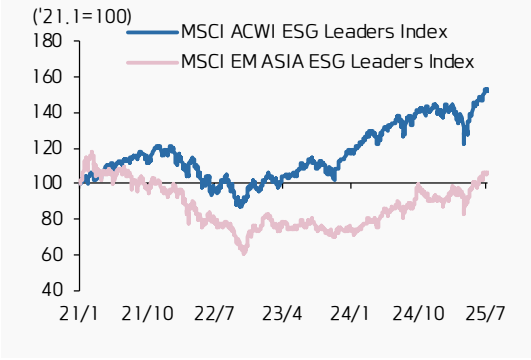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신흥국 MSCI ESG Leaders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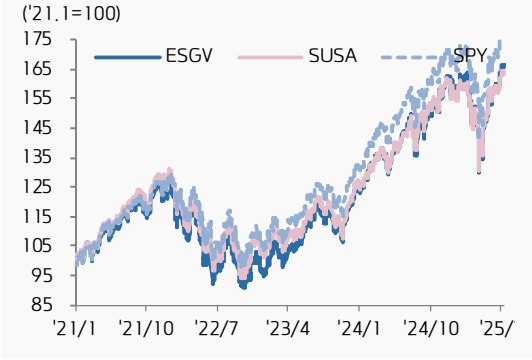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과 이머징 아시아 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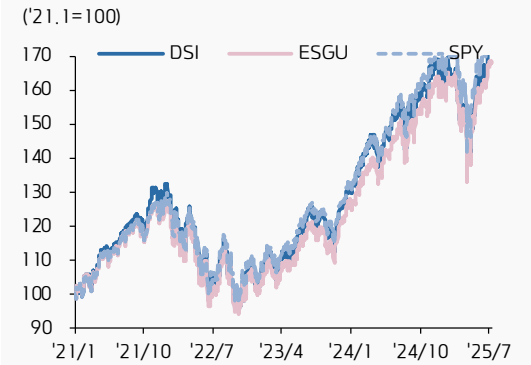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ESG ETF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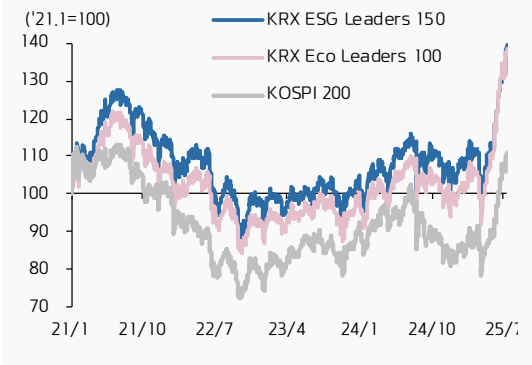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ESG ETF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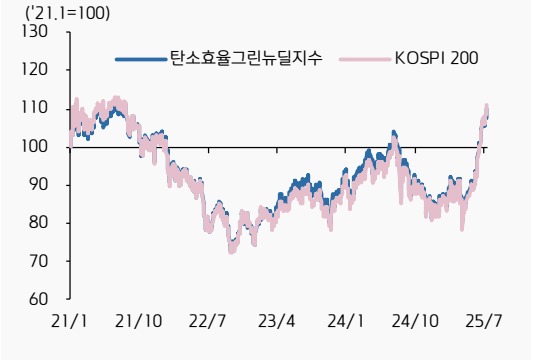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RX ESG 관련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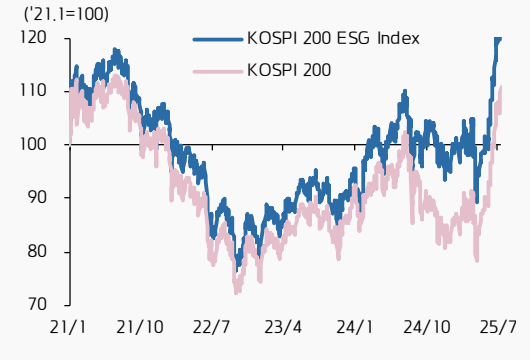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탄소효율그린뉴딜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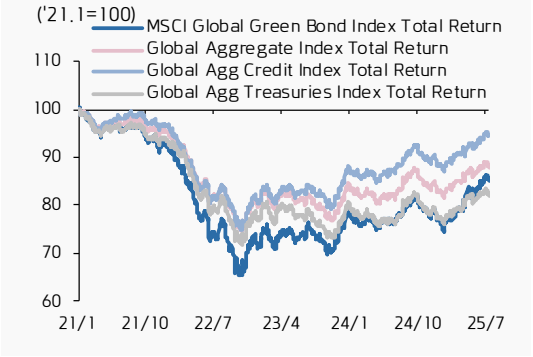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코스피 200 ESG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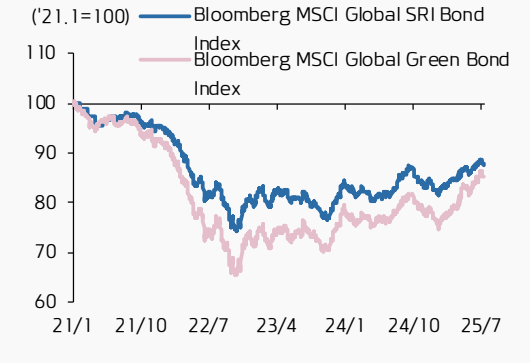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채권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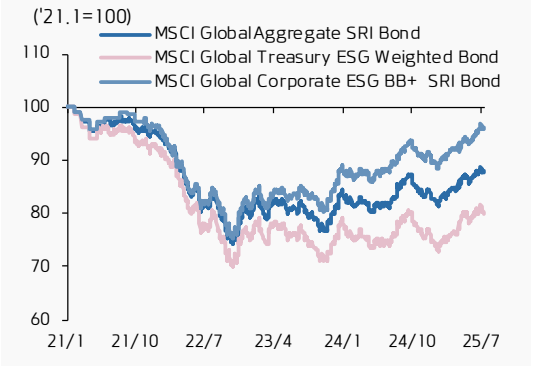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책임투자 / 그린본드 채권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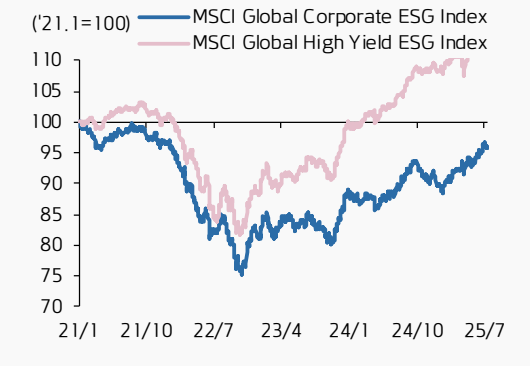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MSCI Global SRI 국채 및 회사채 지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MSCI Global ESG 회사채 지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